

□ 주요 내용

- 트럼프 대통령, 중국 희토류 통제조치*에 따라 11월 1일부로 ① 對中 100% 추가 관세 부과 및 ②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의 對中 수출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 (현지시각 10.10일, 트루스소셜)
 - * 중국 정부는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중국산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(10.9일)
 - *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산 원료와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까지 수출통제 대상으로 확대
- 미국의 對中 100% 추가 관세 시행 시, 미국의 對中 수입품 관세 최저세율은 기존 30%에서 130%*로 인상될 전망
 - * 30%(펜타닐 관세 20% + 상호관세 10%) → 130%(펜타닐 관세 20% + 상호관세 110%)

<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>

일자	관세 조치(%)						최종 관세(%)
	MFN	301조 관세 ^주	펜타닐 관세	상호관세			
4.2.~	0~2.5	7.5~100	20	34 (4.2.)	84 (4.8.)	125 (4.9.)	145~247.5
5.14.~	0~2.5	7.5~100	20	10			30~132.5
11.1.~	0~2.5	7.5~100	20	110 (기존 10%+추가 100%)			130~232.5

주: 美 1974년 무역법 301조 근거, 특정 국가의 차별·불공정 무역에 대응해 부과하는 보복 관세

□ 현지 반응

- (시장) 미-중 통상 갈등 재발 우려에 다우존스 및 나스닥 증시 급락
 -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878.82포인트(△1.90%), 820.20포인트(△3.56%) 하락을 기록
- (언론) 미-중 양국 관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,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가장 큰 불확실성이 대두된 것으로 평가
 - * (AP) 이번 조치가 글로벌 무역전쟁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고 언급
 - * (WSJ) 향후 미국 기업들의 비용압박과 경쟁력 유지에 대한 우려